

2024년도 도선수습생 25명 선발

- 7.8.(월) 2024년도 도선수습생 최종 합격자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도선사* 충원을 위한 2024년도 도선수습생 선발 시험을 실시하고, 최종 합격자 25명**을 발표하였다.

*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로를 운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문인력으로, 올해 7월 기준 전국 항만에 256명이 근무 중

** 합격자 평균연령 45.2세(최연소 38세, 최고령 60세)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은 「도선법」에 따라 총톤수 6천 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올해는 156명이 응시하여 약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험은 필기와 면접의 2단계로 진행되었으며 필기는 지난 6월 6일에, 면접은 7월 3일에 실시되었다. 합격자 명단은 7월 8일부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www.seama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최종 합격한 25명은 7월 중 본인이 근무하게 될 항만(이하 도선구)를 배정받고, 해당 도선구*에서 6개월간 200회 이상의 도선 실무수습을 받게 된다. 이후 내년 초에 실시하는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면 정식으로 도선사 면허를 받아 활동하게 된다.

* (도선구별 배치예정 인원) 부산 3, 인천 4, 여수 4, 마산 4, 울산 3, 군산 1, 목포 1, 포항 2, 대산 2, 평택 2

한편, 내년부터는 선박 대형화 추세에 따른 대형선박 승선 경력자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총톤수 10만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2년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 가산점 2점이 추가로 부여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합격자 분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의 도선 실무수습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책임자	과 장	최문건 (044-200-5770)
		담당자	서기관	박찬수 (044-200-5771)